

#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가동... 1조4852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실직방지, 상품권 조기발행, 관광·공연업 보호, 신규일자리〉

### 서정협 권한대행 기자설명회 거리두기 피해업·취약계층 선별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 역할 “가장 절실한 곳부터 온기 전달”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하고 총 1조4852억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절대적인 서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셋 중 하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심각하다”며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통한 소비 촉진 ▲취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시청에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으로 1조원을 투입해 5만명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

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용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조건은 이자율 1.99%(이자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이와 함께 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

자가 실직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한달에 50만원씩 3개월)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에서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해 도울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 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대한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는 관광업계에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목표다.

공연예술 업계를 위해 시는 비대면·

소규모 축제에 75억원,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에 21억원 등 총 96억원을 투입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액의 절반인 40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발행·판매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시는 동시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5일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

아울러 시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어르신들을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총 591억원을 투입, 취업 취약계층 63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환경정비, 안전관리 외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및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같은 그린뉴딜 분야 신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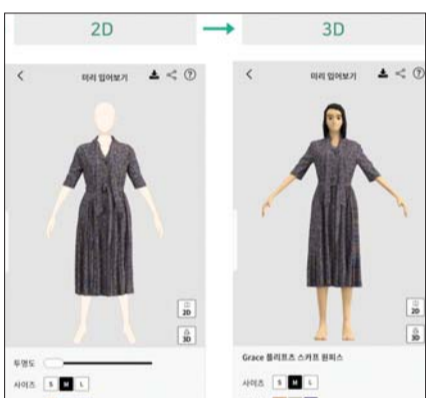
## ‘CES서울관’ 참여기업, 1020만弗 비즈니스 성과

### 서울시 국내 스타트업 우수성 세계 전파 비대면 맞춤 온라인 지원정책 주요

지난달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ICT 박람회 'CES 2021'에서 서울시 지원으로 세계 무대에 선 우리 혁신기업들이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CES 2021' 서울관 참여 기업들이 현재까지 총 1020만 달러(약 113억7700만원) 규모의 수출 및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텍스트를 분석해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로 변환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제작 기술을 선보인 웨인힐스벤처스는 미국 최대 출판사인 펄컨랜덤하우스,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기업인 셔터스톡 등과 120만 달러(약 13억3800만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사들과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신사진을 분석해 신체 사이즈를 측정, 증강현실로 옷을 입어 보는 '에이아이바'의 패션 솔루션 기술 시연 모습. /서울디지털재단

고 시는 덧붙였다.

스마트 영양관리 솔루션을 보유한 알고케어는 CES기간 동안 국내·외 다수의 투자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현재 900만 달러(약 100억3800만원) 규모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 기업은 개인별 영양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영양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내놨다.

전신사진을 분석해 10초 만에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증강현실(AR)을 통해 시작해 볼 수 있는 패션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에이아이바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피앤지(P&G)와 협업을 위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빛을 이용해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분광기술)로 식품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솔루션을 선보인 파이퀀트는 160여 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 글로벌 가전회사와 솔루션 탑재를 협의 중이다.

가상현실(VR) 기술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그대로 살린 실내 사이클을 개발한 리얼디자인테크는 일부 무역진흥기구와 일본 진출을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CES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서울관 참여기업(알고케어, 누비랩 2개 사)이 그 해 출품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주어지는 'CES 혁신상'을 받았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생활위기비상금' 1억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생활비

고양시가 설날을 맞아 고양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모인 기부금 1억 원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위기비상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생활위기비상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사회복지취약시설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지원해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외자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총 1억 원으로, 고양 'it's ok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기관에서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경기도, 도내 철도건설 현장 종합점검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도내 철도건설 사업 현장의 건설노동자,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종합점검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2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노동자 노임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 교통·강설·결빙 등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이 다. /경기=안성기 기자

## 서울시, P코로나 대비 교통 구축방안 모색

### '트랜스포밍 트랜스포메이션' 포럼

서울시는 이달 3~5일 '재건을 위한 안전하고 탄력적인 교통의 재해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포럼 '트랜스포밍 트랜스포메이션 2021'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고 2일 밝혔다.

'트랜스포밍 트랜스포메이션'은 공공,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 세계 교통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

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 과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교통 분야에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손꼽힌다.

이번 행사는 ▲위기 대응 ▲교통과 건강 ▲재정적 회복력 ▲지속가능한 물류 ▲교통과 기후변화 ▲교통을 통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6개 메인 테마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소식지 출간

서울시는 해방촌, 목3동, 장위, 수유동 등 대표적인 24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현장의 소식지를 한 곳에 실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 소식지 모음집'을 펴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과 다양한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달라진 지역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3일 (수) 음력 : 12월 22일

수도권 날씨 -9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3/1, 동두천 -12/2, 가평 -12/1, 양평 -11/2, 용인 -8/3, 평택 -11/4, 인천 -7/2, 수원 -8/3, 파주 -13/2, 서울 -9/2, 백령도 -5/4

해돋이 / 07:34, 해질 / 17:5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